

## 제十三장 법왕『로마』와미국

### 법왕『로마』의표상

「저가 바다 모래에 섰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증성이 나오는데 쓸이 열이 오 머리가 날끓이라 그 쓸에 먼류관 열을 쓰고 그 여러 머리에 참람된 이름을 썼는지라 내가 본 증성이 형상은 표범갓고 그 발은 곰의 발갓고 그 입은 사자의 입가운데 룡이 그 능력과 그 위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내가 보매 저 의 머리 하나이 상하야 죽게 된것갓더니 그 죽게되었든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이 이상히 역어 증성을 쓰르는지라 룡이 증성에게 권세를 주므로 저희가 룡에게 경배하고 또 증성에게 경배하야 가르대 누가 그 증성에게 비하며 누가 능히 더 부러 싸우겠느냐 하더라 또 크게 자랑하며 휘방하는 입을 증성에게 주고 또 권세를 주어 마흔두달을 일하게 하는지라 증성이 입을 버려 하나님을 향하야 휘방 하대 그 이름과 그 장막과 밋 하늘에 거하는자를 휘방하더라 권세를 주어 성도와 싸와 이기게 하고 또 여러 족속과 백성과 지방과 나라를 다스리게 하니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투명한바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다 증성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잇거든 드를지어다 사로잡는자는

사로잡힐것이오 칼로 죽이는자는 마쌍이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는것이 어  
기 보이나니라」

본장의 묵시는 전장 묵시의 계속이니 이 묵시가 十四장  
五절까지에 미치었다. 『요한』이 바다 모래우에 서서 바다  
로부터 한 증성이 나오는것을 보았는데(본장一절일문성경참  
고) 그 증성도 전장에 본 붉은룡과 가리 닐곱머리와 열셋  
을 가졌다. 우리가 이미 연구한바와 가리 증성은 어떤 권  
세나 나라를 표상하는것으로 전장의 붉은룡은 다신교 『로마』  
의 권세를 대표하였거니와 본장의 증성은 법왕 『로마』의 권  
세를 대표하였다. 그런데 그 증성이 바다가운데서 나왔으니  
법왕 『로마』의 권세는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이리난것을  
알것이다. 대개 닐렛으대 「붉은 여러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지방이니라」(묵十七〇十五) 하였다. 그리고 열셋은 『로마』에  
서 나누인 열나라이오 닐곱머리는 『로마』의 력사에 나타난  
닐곱정치들 가리쳤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일주이 하나님의 백  
성을 압박한 나라로 그 판도가 『로마』 판도 가운데 포함된  
닐곱나라를 대표한것이라기도 하는바 이 해석은 전장의 붉  
은룡의 해석과 꼭 같다.



성도들이 밟는 하박림도성



법왕 『마로』 표상하는 하박림도성

그런데 이 증성의 형상은 표범갓고 그 발은 곰의 발갓고 그 입은 사자의 입갓

니 이를 다니엘서七장에 나타난 처음 세증성과 비교할  
때에 그 세증성의 특색들을 골고로가지고 있는것을 받  
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증성을 다니엘서七장의 넷재증  
성과 대조할때에 거기에 매우 유사한점이 있는것을 본  
다. 그러므로 이 증성은 틀림없이 『로마』를 표상한것을  
확인할수 있는데 룡이 그 능력과 그 위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으니 이는 다신교 『로마』의 뒤를 이어 그  
위와 능력과 권세를 여든 법왕 『로마』를 가리침인것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리이다. 『로마』황제 『칸스탄  
틴』(Constantine)이 과연三三〇년의 『로마』나라의 도성  
을 『로마』로부터 『칸스탄틴노플』(Constantinople)로 옮기  
었는데 그때에 다신교 『로마』의 위이든 『로마』성이 『로마』  
감독(후일에 법왕이되)에게 내어준바되고 『로마』국교는  
다신교에서 천주교 곳 법왕교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로마』감독은 『칸스탄틴』황제와 그후의 황제들에게서 만  
흔 례복을 받고 큰 권세를 여겼는데 과연三三三년에는

『로마』황제의 권력이 『로마』감독은 모든 거룩한 교회의 머리가 된

다른 것이 반복되었으므로 또한 그가운데에 『로마』감독은 이교도의 교정자라는 지명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로마』의 대신교는 『로마』천주교가 대신하게 되고 대신교 『로마』의 위는 천주교 『로마』의 위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교회는 국가로 더욱더 결합하고 룡의 그 필박하는 권세도 그리스도교회의 머리라는 법왕의 손에 드러가게 되었다. 이 법왕권은 「임을 버려 하나니와 향하여 휘방하는 권세」니 천주교회의 저술가들은 법왕을 법왕이 이리케 기록하였다.

「그리스도교회의 지상권(地上權)에 포함한 그리스도교 속한 모든 존칭은 또한 법왕에게 버 빼앗겼는가」 『벨라르미』 (Bellarmine) "On the Authority of Councils," Vol. II, p. 266. 「그가 복자의 의사와 지모자의 권한인가 또 세상의 한 다른 하나님이다」 『마켈러스』 (Marcellus) "History of the Councils," Vol XIV, col.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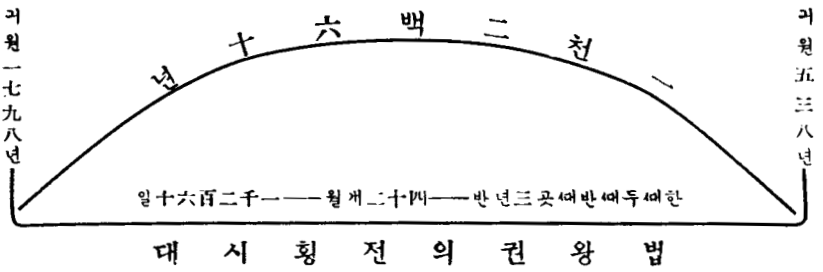
「법왕이 이제서 법률의 가장 훌륭한 재판장이다 그가 오직 영원한 제사장일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며 만민의 주로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레오네』 • 『레오네』 (Leonard Woolsey Bacon) "Vatican Council," p. 220.

파견 법왕은 그리스도의 휘방하게 하나님을 장막과 및 하늘에 거하는자를 휘방하나니 하나님을 불법을 짓 하늘 장막의 법권안에 잇는 불법을 대적하여 제철일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게 하며 또는 법왕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배역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사람의 자유의사와 능력을 구속하여 그리스도의 증보의 지위와 일을 빼앗았으니 하늘창막을 휘방하는 것이다. 「대개 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증보가

계시매 이는 사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딤후전 二〇五) 그리고 법왕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빼트리고 온 세상의 세속적, 정선적 권세를 주장하므로 하늘에 거하는자를 휘방하나니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를 줄 권세도 잇고 사할 권세도 잇다고 한다. 이 법왕권은 우에 말한바와 가리 대신교 『로마』의 위와 권세를

바다 성도를 필박하였나니 력사가들은 여러 만명사람이 법왕권의 박해로 말미암아 살해당한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천주교회의 력사가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천주교회가 여러 세기동안에 신교도를 필박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 권세는 十一장에서 연구한바와 가리 四十二개월간 곧 一천二백六十年간 계속하는것인데 五三三八年으로부터 一七九八年까지 잇는다. 『로마』 황제 『짜스티니안』이 칙령으로써 『로마』 감독은 모든 기록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반포한지 五百年후 곧 五三三八年에는 당시 이태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잇는 『아리안』파의 동 『교』가 법왕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법왕권의 발달에 크게 관계되는 사실이다. 그리므로 법왕권의 확립된 五三三三年 내지 五三三八年으로 부터 一천二백六十年을 지낸후는 一七九三年 내지 一七九八年이 된다.

그런데 三절에 보면 「저의 머리하나이 상하여 죽게된것 갓더니」 하였는바 그 죽게된 머리는 곧 법왕권을 대표하였다. 법왕권이 一七



九百一七九八年

九三년에 이르러 저이의 가장 충실하고 가장 열심있는 지지자(支持者)인 불란서를 일러바트나니 바로 그해에 불란서는 혁명이 이르러나 공포시대가 나란나는동시에 리성(理性)의 신을 숭배하게 되고 모든 종교를 배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왕권은 불란서 혁명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되었다. 『버티어』(Bernier)의 거느린 불란서 군대가 『로마』에 이르러 一七九八년二月十日에 법왕 『피우스』六世(Pius VI)를 사로잡아 지고 불란서로 도라가 『발렌스』성에 유포(幽閉)하였는데 그 법왕은 이듬해에 배소(配所)에서 죽었다.

그러나 주의할것은 그 죽게되었는 상처가 나옴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를 서는것이다. 一七九八년에 불란서 군대가 『로마』에 드러가 법왕을 사로잡을때에 법왕권은 처명적 중상을 입었으나 그러나 一八〇〇년에 다른 법왕이 그 위에 나아간후로 그 상처는 낫기를 시작하였다. 지금 법왕권은 년년이 렬국사이에서 권세를 엮고 있다. 파연 천주교는 모든 족속과 지방과 나라를 다스릴 큰 권세를 잡는터이다. 그 리기적 이오 세상을 사랑하는것을 만족케 하는 교리는 렬국 국회와 가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화를 준다. 비록 그 상처가 법왕권의 정치적세력을 빼앗겼으나 그것이 점점 다음을 따라 세계적 지배권을 다시 회복할것은 필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법왕권은 더욱 발전되어 이전 세력을 회복하였나니 一九二九년二月十一일에 이래 리 정부와 법왕청간에 체결된 『라테란』(Lateran) 조약은 법왕으로 하여금 종교의 지배자뿐 아니라 정치적 주권자인것까지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버티칸』시는 이래리 판도

에서 분리되어 한 독립한 법왕국가를 이루었나니 비록 법왕권의 구역이 불과 一백五『에이커』(한)에 이키『는 약 一천二백평』에 지나지안는 아조 조고마 한 지면이나 이것은 법왕의 절대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파연 오늘날은 온 세상이 이상한 안목으로 불란서 혁명당시에 상하였는 상처가 나아가는 그 법왕권을 주목하고 그를 서라나아간다. 이와가리 법왕권이 권세를 어더가때 법왕 숭배자들은 니르기를 「누가 법왕으로 더부러 비하며 누가 능히 더부러 싸우겠나고」 하기에 이르기까지 할것이다. 그리하여 창세함으로써 죽임을 받든 어린양의 생명체에 투명한바 되지못한 이세상에 사는자들은 다 법왕에게 경배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사로잡는자는 사로잡힐것시오 칼로 죽이는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 권세가 아모리 성도를 괴롭게 하고 죽일지라도 마침내 자기의 행한 보응을 받을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十七장과 十八장에 기록이 있다.



감 혁 작 로 사 의 세 六 『스 우 피』 왕 법

법외권을위하러는우상

「내가 보매 또 다른 증성이 셔에서 올라오니 양의삭기가리 두 썰이 잇고 룡과 가리 말하는지라 이 증성이 몬져 나온 증성의 권세를 그 압해서 다 쓰고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전 증생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되었든 상처가 나온자라 큰 이적을 행하대 심지어 사람압해서 불이 하늘로부터 셔에 내려 오게 하고 증생압해서 파든바 이적을 행하므로 셔에 거하는 사람을 혹하게 하며 셔에 거하는 사람을 평하야 칼에 상하였다가 사라난 증생을 위하러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바다 증생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증생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또 무리로 혹 적은자나 큰자나 혹 부자나 빈궁한자나 혹 자주한자나 종이 나 다 오른손에나 이마에나 표를 받게 하고 사람이 만일 표가 입손족 매매들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증생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겨 잇으니 총명잇는자는 그 증생의 수를 헤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六六六六六이니라」

본장 일전에 기재된 증생은「바다」곳 백성과 나라들이 잇는곳에서 나아왔거니와 十一절에 말한 증생은「셔」에서 나왔으니 곧 백성과 무리와 나라가 잇는곳에서 이르렀다. 이 두썰 가진 증생은 세로 이러나는 나라를 예언한것인바 『요한』이 단순히 두썰 가진 증생이라고만 하지안코 양의삭기 잣다고 한것은 이 증생으로 표상한 나라가 아조 순



생 증 진 가 꺾 두 는 하 상 표 을 국 미

진하고 어질썩아니라 또한 심히 어리어서 장차 자라날 여지가 만흔것을 보임일것이다.

으로 규정하였다. 오컨대

과연 一七九八년에 법외권이 치명상을 당하는때쯤이야 백성과 나라들이 일족이 업든 신대륙에서 한 새로운 나라가 생겨났으니 이것이 곧 양의삭기 가든 증생으로 대표된 북미합중국이다. 이 합중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인바 一七七六년에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一七八九년에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진국이후로 매우 신속한 발달을 이루었는데 그 나라가 무슨 침략적 전장이나 무력으로 발전된것이 아니오 양의삭기로 표상한바와 가리 평화적 수단에 의한 병합이나 자연 발달로 장성한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표상하는 양의삭기 가든 그 증생이 두썰이 나서 자라기를 시작하였으니 이는 그 나라가 두가지 큰 원추우에 기초를 세운 표상이다. 곧 하나는 공화민주주의(共和民主主義)요 하나는 신교자유주의(信敎自由主義)이니 이 나라는 한 왕의 전제맛기를 원치아니하여 백성으로 말미암아 조직되고 백성을 위하야 정치를 행하는 공화정부를 세웠으며 또는 법외의 지배나 정부의 간섭을 맞지 아니하고 절대 자유의 신앙을 가질수 잇기위하야 이를 헌법 미국 국민은「법외의 업는 교회와 남편이 업는나라」를 원하

였나니 즉 공민권과 신교자유를 원한 것이었다. 과연 미국은 두물가지인 양의삭기로 표상하기에 적당한 일족 세계력사에 업섯든 민주국이오 신교(新敎)국이였다.

그런데 이 미국으로 표상된 양의삭기 가른 증성은 롱파가리 말을 하고 묻저 나온 증성의 권세를 그 압해서 다 쓰고 쓰 이 세상과 밋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전 미혹하는 소리와 압박하는 소리를 말할것을 의미합이니 미국이 종차로 공민권과 신교 자유의 손진하고 온량한 양의삭기 가른 성질을 바리고 그 전증생 곧 법왕『로마』와 가리 성도를 핍박할것이다. 즉 법왕권이 행하는 성도 핍박의 권세를 이제로부터 미국이 대신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법왕권을 경배하게 할것이니 그 유일한 방법은 법왕권이 제정함과 일요일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외의 창조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므로 써 할것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전증생에게 경배하게 한다하는 말가운데는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여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법령을 쓰르게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큰 이적을 행하대 심지어 사람압해서 불이 하늘로부터 썩에 내려오게 하고……썩에 사는 사람을 혹하게 한다」하였는바 미국은 과연 이적의 나라라고 닐카를을 뵈나니 현 대과학의 발달은 실로 놀랄만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 말한것은 미국의 과학적경이를 의미한것이 아니오 강신술(降神術)로 말미암아 행하여지는 비과학적 이적을 말하는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재림 바로전에 잇을 사건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대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나 큰 징조와 이상한일을 보이여 택하신자

에게도 미혹하게 할수만 잇으면 하리라」(마廿四〇廿四)하였다. 이와가리 우리는 말세에 이적을 행하는 권세가 이리날것을 성경상으로 볼수잇거니와 이것과 관련된는 세상 정부는 곧 두물가지인 증생으로 대표된 미국이다. 이 미국이란 순진하고 어진듯한 권세 이지마는 그 내부에는 『사단』이 잇어서 조종하는것을 우리는 깨다를수 잇는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만히 행하는 강신술은 큰 징조와 이적을 행하리라는 예언을 정확하게 응하고 있다. 강신술의 놀라운 귀적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록이 잇다.

「오직 신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불진이 그 자리를 음기고 인간외 귀관에서 독립한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고 사람들이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압해서 공중으로 썩 다니고 여러 사람이 올라안진 책상이 공중에 들리우고 신이 형체가 잇게 나타나고 사람이 드를수 잇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Spiritualism versus Christianity.)

그런데 이 강신술이 一八四八년에 그 속이는 일을 미국에서 시작하여 행하였으므로 본장의 예언을 성취한다.

그리고는 이 증생이 「썩에 거하는 사람을 명하여 우상을 만들라」하며 그가 「권세를 바다 증생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썩 증생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자는 머치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하였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증생」은 두말할것업시 법왕권 곧 천주교회이니 이 교회는 정권을 가진 종교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국가가 련합하여 종교적교리를 정치권리로 강제하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증생의 우상」은 그 증생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것이라야 될것이니 곧 교회와

정치적 세력이 연합하여 가지고 종교적교리를 강제하는 조직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제 미국에 있는 각 신탁교회들은 그러한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칸스틀린』이로 부터 시작하여 그 후계자들이 암흑시대동안에 교회의 의사(意思)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법을 사용하였나니 이리하여 천주교회는 발전되었다. 이가튼 방법을 오늘날 미국에 있는 신탁 각 교회와 유력한 정치가들도 주창하고 있는바 곧 일요일법을 세워 일반 백성들까지도 강제코 이난에 후임케 하려나 것이니 「미국 주일법령」(Lord's Day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기독교법령」(The Feder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이들과 단체들을 다 이 운동에 유하여 정조되었으되 또한 천주교측에서 보 「천주교 미국법령」(The American Federation of Catholic Societies) 이라나 것이 조직되어 일요일법을 국법으로 세우기를 힘쓰나리이다. 이 운동은 이미 수년동안 계속하여 왔은즉 오래지 아니하여 실현될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 증성을 위하여는 우상이 다만 드러지는 때 곳 우에 말한 여러 단체들의 희망이 미국 국법으로 나타나는데는 암혹시대에 잇는바와 가튼 큰 종교적 박해가 이러날것도 반드시 업슬수업는 정세이다. 그러므로 두물가진 증성인 「증성의 우상에게 생귀를 주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증성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자는 버치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예언한것이다. 또한 그 증성은 「무리로 혹 적손자나 큰자나 혹 부자나 빈궁한자나 혹 자주한자나 종이나 다 오른손에나 이마에나 표를 받게 하고 사람이 만일 이 표가 업손즉 매매들을 못하게 한다」고 하였는바 그 표는 다른것이 아니라 곧 거짓안식일인 일요일이다.

이 일요일은 각 계급 사람에게 다 지키기를 강제하되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자는 비매동맹을 당하게 될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七장에서 연구한바와 가리 하나님외의 인공 표를 바드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할것은 리해하는바어니와 증성의 표는 세 천사의 기별(十四장해석참고) 곳 『바벨론』에서 나와 증성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말라는 경고다 시 말하면 거짓안식일을 바리고 참안식일을 지키라는 경고를 밧지안코 거절하는 때에 비로소 완전히 밧게 되는것이다.

다니엘서七장에 보면 법왕권을 표상한 그 직손실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가 장차 말도써 지극히 높으신자를 대적하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자의 성도를 괴롭게하며 모든 때와를법을 변경하고자 하리라」(廿五절) 하였다. 과연 하나님의 물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곳 『로마』천주교회인데 천주교 그 자신도 하나님의 물법가운데서 넷째계명의 안식일을 변경한 사실을 스스로 증거한다. 천주교회의 교리문답가운데 이러한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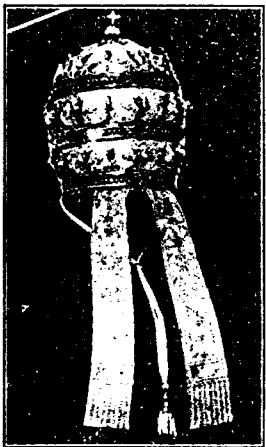
「문」 교회가 제일이나 성일을 제정할 권세가 잇는것을 어찌케 증명할수 잇나뇨  
 「답」 신탁교도들도 승인하는바와 가리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사실로 알수있다. 그런데 주일은 엄중히 지키면서도 교회가 제정한 다른 축일들과 밧하는 신탁교도도 말하면 진실로 그 모순됨이 심하다. "Abridgment of Christian Doctrine," p. 58.

「문」 교회가 축제일의 세축을 제정할 권세잇는것을 증명할 무슨 조진이 잇나뇨  
 「답」 만일 교회가 그러한 권세를 가지지 못하였더면 오늘날 모든 종교가들의 일치하는바 일을 이루지못하였을것이니 곧 교회가 제정할 안식일 대신에 성경상 아모

근거도 없는 주일중 첫째날인 일요일을 지키게 할수가 없었을까이다」(A Doctrinal Catechism, p. 174.

우리는 이 문답가운데서 일요일은 천주교회의 권세를 드러내는표 즉 법왕권의 표임을 알수있는것이다.

누구든지 일요일에 관한 그릇된 교훈을 율케역이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에 예배하는자는 증생의 표를 그이마에 밝는자요 또한 형식을 써라 그날에 일을 하지아니하는자는 그 표를 오른손에 밝는자니 그러한자들은 결코 증생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사단』을 순종하고 그를 경배하는것이 되는것이다.



관류권증생의왕법

「증생의수」에 대하여『요한』은 기록하기를「그수는 사람의 수니 六백六十六이니라」하였다. 이것은 필시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직명(職名)이라하고 추측되는바인데 『로마』법왕의 『라틴』어 칭호중 한가지가 예언에 말한 六백六十六의 수가 되는것은 실로 신기하고도 놀라운 사실이다. 그 칭호는 주 『빅카리어스·필리·씨아이』(Vicarius Fili Dei) 이니 이를 조선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것이다. 그런데 이 말 가운데는 저도 덜도 안되고 꼭 六백六十六의 수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자세히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V	5
I	1
C	100
A	R
I	U
S	F
I	L
I	I
D	500
E	I
I	1
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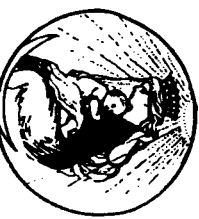
※ 주의 『라틴』어의 U 자는 보통 V 자로도 통용되는것이다

그리고 이 칭호는 일즉이 법왕의 편류판에 기록되었는것이므로 가장 신빙(信憑) 할만한것이여니와 오늘날도 천주교회는 법왕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것을 주장하는리이다.

이 법왕권은 이미 상하여 죽게 되었었으나 이제 나아서 아조 신속히 이전 세력에 회복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이상히역여 증생을 써라갈것인데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자들만 그를 쓰르지 않을것이오 그외는 모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경배하게 될것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주신 지혜를 써라 「증생의 수」를 헤어 보았다. 그런즉 우리가 어찌 그 증생을 쓰리며 증생의 표 일요일을 지키는것인가? 안식일과 일요일, 하나님의 인과 증생의 표 이 두가지는 전세기 인류를 구별해놓는 두 큰 기호이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한갓 법연히 생각할것이 아니다. 여기에 우리 운명의 분기점이 있는것을 깊히 각오하여야 할것이다.



림의 의수에



림조의 의수에

거월 五三八年

거월 一七九八年

거월 一五二七年

작시의 도배

풍도 불인녀이서

六十一〇二十목

함라 하계 불침 불인녀로 불안용년十六明二천一

五十一 六〇二十목



불이아이를 함저고의삼 목 三〇二十목



림화의 원암법 목 三〇三十목

불남나화신호불취구저 함계 불의 풍도성교하방회 목 八一五〇三十목

종교개혁



함삼아나하림의 목 三〇三十목

거월 二五천

의구 불법

한림 불생 불취하우삼목 목 十三〇十一 十二



불나가취삼 목 三〇三十목



불나가취삼 목 三〇三十목

세 권 세는 하 저 코 해 를 회 교